



입문과정



3개월

기본과정



6개월

고등과정



8개월



GLOBAL & INSIGHT

06

공군IN

14



- 06 경청노트 '안보'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다
- 08 Pioneers up above 장덕창(張德昌) 장군
- 10 Global AF 미 공군에 속아 넘어간 북베트남군의 미그 21 볼로작전
- 12 Leadership+ 잡기에 능하고 싶다?



- 14 기획특집 건군 제64주년 국군의 날 행사
- 26 포토프레임@AF 참모총장 스케치
- 28 AIR FORCE MONTHLY 2012. 11. NEWS
- 30 공군 이웃사랑회 인터뷰 공군 이웃사랑회 소개
- 34 Photo Sketch F-5 야간비행/씨스타, 공군과 함께 춤을!
- 40 공군 홍보대사 Zoom In 구자철 선수 근황

COVER STORY



표지(앞) 힘차게 뛰어오르는 공군사관생도 사진 | 종사 양순호
표지(뒤)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조종사가 되는 과정

CULTURE 36.5

42



- 42 Hollywood English SNOW WHITE & THE HUNTSMAN
- 44 인생은 아름다워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 46 Air-Supply 개그콘서트의 무한도전
- 48 Preview 11월의 문화행사

OPINION

50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9월호를 읽고서
- 50 공군지 캠페인 오빠, 착한 음주 스타일
- 52 Health Diary 독감백신 예방접종
- 54 독자기고 젊은 날 거침없이 날아간 비행
- 56 책마을 상처 없는 성공은 없다

MONTHLY MAGAZINE

VOL. 413. 2012. 11

※ 공군지를 인터넷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airforce.mil.kr>)

발행일자 2012년 11월 2일(통권 제413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43, 042-552-6943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김승표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대위 김나청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9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01 월간 「공군」은 **[스승]**이다. 생각하는 그림, 문화면 등 유익한 기사들이 모두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생각하는 그림의 '인생 최고의 교육'을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인성을 닦아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발행하는 잡지이기 때문에 딱딱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버렸습니다. 공군 장병들의 문예도 보고 싶네요. - 전남 여주시 정아현

02 월간 「공군」은 **[레디액션]**이다. 촬영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레디액션' 처럼 긴장과 기대, 두근거림이 가득한 잡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생각하는 그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 코너 중에 땀띠/강남스타일 관련 글은 시의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원고 청탁이 너무 빠르거나 늦은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 전북 익산시 박진이

03 월간 「공군」은 **[스타일]**이다. 매달 멋진 표지모델이 등장하는 표지, 화보를 방불케 하는 화보 구성 등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스타일리쉬한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스타들의 인터뷰를 통해 8월의 감동을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군 장병들과 여자 친구가 함께 출연할 수 있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들이 가장 관심있게 읽는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 서울 구로구 김석환



04 월간 「공군」은 **[증전보]**다. 스포츠, 연예, 국방 등을 아울러 세계 속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드높은 위상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ASSA 캠프 특집이 재미있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해군과 육군에도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전 대덕구 김원

05 월간 「공군」은 **[설레임]**이다. 공군을 전역한 지는 오래됐지만 늘 새로운 소식에 가슴 설레곤합니다. 첨단 무기와 고도의 훈련을 통해 정예화되어가는 공군의 모습이 한없이 대견스럽고 든든합니다. 항공선각자 김정렬 장군에 관한 글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의 명전투와 명장들의 이야기를 연재로 다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 연제구 강주찬

06 월간 「공군」은 **[희망]**이다. 장래 우리나라 최후의 보루를 지키고 국토방위의 핵심이자 간성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ASSA 캠프 관련 기사를 보고 공군을 전역하는 병사들은 이전의 관행을 깨고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을 새로이 정립해 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병사들이 주말에 병영에서보다 즐겁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여가선용의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 경남 창원시 우도형

‘안보’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다
* 경청노트

미 공군에 속아 넘어간
북베트남군의 미그 21 볼로작전
* Global AF

장덕창(張德昌) 장군
* Pioneers up above

잡기에 능하고 싶다?
* Leadership+

Global &
Insight

‘안보’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다

독도는 우리 땅!

드드드… 헬기의 진동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할 무렵, 감고 있던 눈을 떴다.

옆 창문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내비친다. 함께 갔던 선배기자들이 저마다 창문에 머리를 박고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뭐지? 나도 은근 슬쩍 창문으로 시선을 옮긴다. 끝없이 펼쳐진 청록빛이 넘치듯 들어오고… 저 멀리 아른거리는 것. 독도다! 남아있던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다.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독도는 처음이다. 생각보다 크고 웅장한 모습. 좀 더 다가가니 동도, 서도로 나뉘어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모습이 신비롭기까지 하다. 독도는 대를 이어 덕을 쌓아야만 갈 수 있다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헬기에서 내려 독도의 땅을 밟는 그 기분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묘하면서도 좋았다.

상쾌한 바다 바람과 함께 독도경비대 대장님과 장병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최근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으로 경비에 더욱 만전을 다하고 있으신다는 대장님의 얼굴엔 국토수호의 사명감 그 이상의 자부심이 가득해 보였다. 왜 안 그럴겠는가. 두 발로 직접 독도의 속살 이곳저곳을 디터보니 ‘이곳은 진정한 우리 땅’이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머리와 가슴 가득 차올랐다. ‘국가안보’라는 말이 별게 아니었구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안보’였음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리고 이 땅을 24시간 불철주야 지키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깨닫게 됐다.

대한민국 영공방어의 시작점

짧지만 강렬했던 독도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우리가 향한 곳은 울릉도였다. 맑은 날에는 독도를 맨눈으로 볼 수 있다는 울릉도. 이곳에서 우리를 반겨준 분들은 공군8355부대 분들이었다. 레이더 운용 대대인 부대는 적의 항공기 등을 가장 먼저 탐지해 상부에 알려주는 ‘대한민국 영공방어의 시작점’인 곳이었다. 이 부대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식도기(케이불카)를 타고 레이더가 있는 산 정상부근 작전지역에 올라갔다. 알고 보니, 물자수송의 편리함 때문도 있지만, 울릉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덜 훼손하려는 깊은 뜻이 담긴 식도기였다. 나리분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울릉도의 빼어난 경관에 눈을 빼앗긴 지 십여 분, 레이더가 있는 작전지역에 도착하자 거대한 레이더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이 레이더의 감시망은 멀리 일본 서부까지 미쳐, 일본 정찰기 등이 독도 인근에 접근할 경우 우리 군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단다. 이 레이더기지가 공군의 핵심 전력이자 독도 방위



의 최일선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 작전기지가 산꼭대기에 있는 만큼 장병들의 고생도 심했다. 특히 지형상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의 특성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눈이 몇 미터씩 쌓이는 겨울에는 식도기 운행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 작전지역의 병사들이 고립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작전기지에서 내려오기 위해 다시 식도기를 탔을 때, 천장 쪽에 붙어있는 온통 하얗게 변한 울릉도 사진에 다시 시선이 머물렀다. 올라올 때와는 다르게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고된 일상 속에서도 밝은 표정으로 부대 안을 정리하고 있던 병사들이 고맙기만 했다.

“기상이 좋을 때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입니다. 우리 땅이라는 기준이 보이나 안 보이냐 이런 기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동감합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독도가 안 보이거든요.” 식도기에서 내려와 부대 안에서 설명을 듣는 시간, 부대장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 ‘그렇지, 옛날에는 순전히 육안으로 탐사를 했을 텐데 보이지 않는 곳에 갈 생각이나 했을까?’ 답은 가장 단순한 진리 안에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쳤다. 근거 없는 억지 논리로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군의 눈’인 이 울릉도 레이더 기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진정한 빨간 마후라’

다음 목적지는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군하면 역시 ‘빨간 마후라’라고 부르는 목에 두르는 붉은 머플러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18비 단장님을 비롯해 여러 조종사들 또한 목에 붉은 머플러를 멋들어지게 맨 채, 우리를 따뜻이 맞아주셨다. 18전투비행단은 ‘빨간 마후라’를 처음으로 착용한故 김영환 장군이 근무했던 강릉기지의 후신이라한다. 부대 한 켄에는 승호리 철교 폭파, 평양·원산폭격 등의 공훈을 기리며 ‘빨간 마후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래 비석

도 세워져 있었다. 재미있었던 것은 우리 회사의 라디오 특집극 주제가가 빨간 마후라 노래의 모곡(母曲)이란 사실이었다.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공군과 빨간 마후라가 더 친근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었다.

이어진 단장님의 비행단의 전투기 실태에 대한 설명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실전 전투 비행 때 완벽을 기하기 위해 매일같이 훈련에 힘은 쏟고 있지만, 전투기가 너무 노후화됐다는 것이다. 어떤 기종은 무려 40년이 넘어 정비에 만전을 다한다해도 기동 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또 단장님은 최신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받은 정예 조종사 후배들이 한참 구식인 노후 전투기로 훈련을 해, 자신이 배운 것들을 실제 비행에서 구현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아쉽다는 말씀도 하셨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기 전투기사업 얘기도 나왔는데, 빠른 시간 안에 전력화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조종사들의 안전과 공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충분한 검토와 시험을 통해 최상의 전투기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기자로서 사업의 여러 과정을 면밀히 취재해 올바른 과정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 순간이기도 했다.

현재진행 그리고 미래

돌아온 지 보름여가 지났다. 가을별 아래 반짝이던 독도, 원시적인 향기를 간직한 울릉도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리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뜨거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 나라를 지키다’는 것이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안보’는 명사가 아닌 동사라는 것. 내 발로 직접 걷고, 두 눈으로 보며 처음, 생생히 느꼈다.

벌써 ‘우리 땅’ 독도가 그림다. **AF**



장덕창(張德昌) 장군

한국군 단독출격작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등을
일선에서 이끈 탁월한 공중지휘관



장덕창 장군은 1903년 5월 9일 평북 의주에서 유복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7세 때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였다. 1917년 양정고보 2학년 때 미국 비행사 '아트 스미스'의 여의도 시범곡예비행을 보고 비행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919년 일본의 이토(伊藤)비행학교에 입학, 1921년에 졸업하였다. 1922년 5월 그는 일본 비행사 면허시험에 합격함으로써 한국인으로는 안창남에 이어 두 번째 비행사가 되었다.

동아일보는 '새로이 조선인 비행사 한 명이 탄생했는데, 서울 다동 31번지의 장덕창(19) 씨는 1921년 10월 30일 일본 이토비행연구소를 졸업하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순경 고국에 돌아와 상쾌한 순회비행을 계획하는 중이라더라.'고 보도했다.

1925년 6월 10일 장군은 한강변 시범비행 중 엔진고장으로 불시착하여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1929년 5월 설립한 조선비행학교는 유람비행사업도 병행했는데, 서울상공 유람은 5원, 인천 유람비행은 10원이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1930년 경성시민의 달콤한 유희 중 하나는 비행기 놀이였다. 인천까지 단 7분 동안 비행하는데 10원이다. 사람들은 10원짜리 지폐를 던지고는 '죽어도 말 없다'는 서약서에 도장을 찍고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위대한 길을 떠난다.>라고 썼다. 당시 대졸 초임은 40원이고, 500원이면 웬만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는데, 조종면허증을 따려면 2천원이 들었다고 하니, 조종사가 되는 길이 쉽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군은 오사카 일본항공수송연구소에서 대도시를 비행하며 우편물 운송, 선전 배라 살포 및 시범 홍보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해방 직전까지 그는 비행시간 9,820시간의 수석비행사로 승진하여 명망 있는 항공인의 반열에 올라섰다.

광복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하늘을 지키는 공군창설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부관계 요로에 적극 건의하였지만 미 군정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육군항공대가 창설되면서 그 일원이 되었다. 1948년 4월 1일 미 군정 당국이 공군창설 7인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라고 통보함에 따라 장군도 그곳에 입교하여 훈련받았다. 이어 5월에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그는 육군항공기지 부대장으로 일하면서 공군 독립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1949년 10월 1일, 드디어 공군이 독립하였고, 장군은 공군기지사령관의 중책을 맡았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장군은 8월에 비행단장으로 보임되어 물밀듯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적정 정찰 및 출격작전 등에 솔선수범하며 진두지휘에 전력투구하였다. 8월 15일 공격에 실패한 북한군은 일부 병력을 투입하여 통영을 점령한 다음 진해를 위협하고 부산에 압력을 가하고자 시도하였다. 우리 공군은 8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낙동강

방어선 후방의 적 병력 이동과 보급품 집적소를 집중 공격하였다. 이때가 6·25전쟁의 분수령이었다는 점에서 장군의 비행단장으로서의 진두지휘는 특히 의미가 깊다.

한편, 우리 해병대는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통영반도에 상륙, 적 섬멸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지원을 요청했다. 8월 17일 우리 공군은 T-6 4기 편대로 출격하여 통영반도로 침입하는 적 지상군을 발견하고 F-51 전폭기에 연락하여 공격하도록 유도하였다. 우리 공군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해병대 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남부 해안으로 수송되는 적 보급선 2척을 파괴시키고 진주 및 고성지역의 적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낙동강방어선 서남부지역의 사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는데, 그 중심에 일선지휘관 장덕창 장군이 있었다.

이후 장군은 1, 2차에 걸친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951년 준장으로 승진하였다. 장군은 1951년 10월 전투비행전대를 강릉기지로 이전시켜 한국군 단독출격작전을 수행토록 하는 등 창군 초기의 군 발전과 전쟁 기간 중 탁월한 전투지휘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비행단장으로서 장군의 후덕한 덕망과 탁월한 지휘역량은 연일 출격에 지친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포근하게 감싸며 단합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1953년 장군은 공군참모차장으로 보임되었고, 이때 아시아 최초로 1만 시간 무사고비행을 기록하였다. 1956년 12월 1일 공군중장으로 승진하면서 제4대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하였다. 장군은 항상 공군력의 전략적 운용 및 지휘통제, 그리고 전투조종사의 육성, 전략항공기지 확보 등을 위해 진력하였다. 이 같은 평소 지론을 바탕으로 참모총장 재임 중 그는 전투부대를 증설하고 미 공군의 레이더기지를 인수하는 등 오늘날 막강 대한공군의 성장기반을 착실히 다졌다.

원칙한 체구에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는 인상의 장군은 항공계의 중진다운 기품으로 손수 군용기를 조종하여 각 부대를 출격 불시에 순시하기도 하는 등 의전형식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야전형 지휘관이었다. 그는 또한 “무인의 끓는 피를 가라앉히려면 부드러운 손길이 있어야 하고, 젊음을 불태우려면 우선 한 잔 술이 있어야 한다.”며 젊은 참모들과 함께 명동의 대포집을 자주 찾던 낭만을 아는 지휘관이기도 했다.

40여 년을 항공인으로 일해온 장군은 비행사의 제일 요건을 ‘첫째는 기술이고, 다음은 정신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술이 좋아야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정신통일이 있어야 위기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59년 중장으로 예편 후 초대 보라매회장을 지냈다. 장군은 6·25전쟁 중 세운 혁혁한 전과를 바탕으로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비롯, 을지무공훈장, 태극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1972년 7월 11일 영연하여 동작동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되었다. **AF**



1전투비행단장 장덕창 대령과 조종사들



6·25전쟁 당시 F-51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있는 장덕창 대령

미 공군에 속아 넘어간 북베트남군의 미그 21 볼로작전

Operation Bolo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요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만(欺瞞)이다. 손자병법에는 전쟁은 속임수라고 할 정도로 기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항공전도 마찬가지다. 적의 항공전력을 속여 아군의 항공전력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승패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SA-2 지대공 미사일의 위력이 약화되자 북베트남군은 최신예 전투기인 미그 21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사진 출처 미 국방부)

지대공 미사일을 약화시킨 전자전기와 와일드 위즐기

01



롤링 썬더 작전 당시 미군 전투기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SA-2 지대공 미사일 (사진 출처 루마니아 국방부)

북베트남 폭격 작전으로 잘 알려진 롤링 썬더 작전(Operation Rolling Thunder)은, 1965년 3월 2일 북베트남과 베트남 게릴라들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애초 8주로 예정되었던 작전 기간은 3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예상과 달리 강력한 북베트남군의 저항에 미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구소련의 원조로 북베트남은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었고, 북베트남군의 SA-2 지대공 미사일은 미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작전 기간 동안 미 해·공군은 900여 대의 항공기가 격추되거나 손실되었다. 하지만 당

하고만 있을 미군이 아니었다. 미 공군은 북베트남군의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전자방해 및 대공제압 계획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폭격기를 개조한 전자교란 임무기 EB-66과 전투기를 개조한 대공제압기 F-100, F-105F, F-105G 와일드 위즐(Wild Weasel)이 속속 등장했다. 이들 기체들의 등장으로 SA-2 지대공 미사일의 위력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F-4C 팬텀 전투기 조종사들은 F-105 전폭기의 편대대형과 호출 부호 그리고 무선 교신 등을 훈련한다. (사진 출처 미 공군)

북베트남의 신병기 미그 21

02



북베트남군의 미그 21 전투기는 베테랑 조종사들만 조종했고 이들은 치고 빠지는 전술로 미 공군 F-105 전폭기를 괴롭혔다. (사진 출처 미 국방부)

미군의 전자전기와 대공제압기의 등장으로 북베트남군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궁리 끝에 구소련이 북베트남에 제공한 최신예 전투기 미그(MiG) 21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최고 속도 마하 2에 AA-2 아톨(Atol)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미그 21 전투기는, 당시 북베트남군이 보유하고 있던 미그 17이나 미그 19 전투기보다 속도가 빨랐고, 원거리에서 적기를 요격할 수 있었다. 공중전에 투입된 미그 21 전투기는 지상관제소의 정교한 지시 아래, 무거운 폭탄을 장착한 미 공군 F-105 전폭기들을 노렸다. 미그 21 전투기는 빠른 속도를 이용한 히트 앤드 런(hit and run) 전술을 구사했다. F-105 전폭기를 호위하는 전투기가 있었지만, 갑자기 나타나 치고 빠지는 북베트남군의 미그 21 전투기 때문에 공격편대군은 무너지기 일수였다. 결국 적지 않은 수의 F-105 전폭기들이 격추 당했다.

복수의 칼날을 세우다

03



미 정부는 미 공군 전투기들이 북베트남 비행장을 공격하는 것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금지시켰다.
(사진 출처 미 공군)

당시 태국 우봉 공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미 공군 제8 전술 전투비행단은, 베트남전 최초로 북베트남군의 미그 21 전투기가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에 F-4C 팬텀(Phantom

II) 전투기가 격추당하고 만다. 또 다른 미그 전투기에 F-4C 팬텀 전투기 2대가 연속으로 격추당하자 비행단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더블 에이스를 기록한 로빈 울즈(Robin Olds) 대령이 비행단장으로 취임하자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하늘의 전사였던 로빈 울즈 대령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미그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한 공중전 기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미그 21 전투기에 복수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한다. 미그 전투기들의 숫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베트남군의 비행장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정부는 미 공군 전투기들이 북베트남군 비행장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북베트남군의 비행장에는 구소련군 고문단이 있었고, 만약 이들이 죽을 경우 베트남전은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더블 에이스를 기록한 로빈 울즈 대령 (사진 출처 미 공군)



볼로작전의 입안

04



로빈 울즈 대령은 F-4C 팬텀 전투기를 F-105 전폭기로 오인하게 해서 미그 21 전투기를 유인하는 작전을 구상한다.
(사진 출처 미 공군)

팬텀 전투기를 F-105 전폭기로 오인하게 해서 미그 21 전투기를 유인하는 방안을 상관에게 제시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과 달리, 레이더 스크린상에서 기종을 판별할 수가 없었다. F-4C 팬텀 전투기가 F-105 전폭기와 흡사하게 비행한다면 적이 속을 수도 있었다. 상관의 OK 사인이 떨어졌고,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볼로작전으로 명명된 이 작전은 정교도와 유사한 필리핀의 전투칼에서 이름을 따왔다. F-4C 팬텀 전투기 조종사들은 F-105 전폭기의 편대대형과 호출 부호 그리고 무선 교신 등을 훈련했고, 작전에 동원된 F-4C 팬텀 전투기들은 F-105 전폭기에 장착되는 QRC-160 전자전 포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되었다.

미 공군 조종사들이 미그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미그 전투기들을 공중전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함정이 필요했다. 로빈 울즈 대령은 F-4C

환호하는 우봉기지

06



울즈 대령은 이날 AIM-9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미그 21 한 대를 격추한다.
(사진 출처 미 공군)

지 않았고 기상 악화로 귀환해야만 했다. 울즈 편대가 도착하자 우봉기지는 축제 분위기였다. 조종석이 열리자 조종사들은 손가락으로 자랑스럽게 격추시킨 적기 수를 표시했다. 이날 제8전술 전투비행단은 13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단 1대의 아군 전투기 손실 없이, 7대의 미그 21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당시 북베트남군은 총 10여 대의 미그 21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볼로작전을 통해 절반 이상의 미그 21 전투기가 격추되고 말았다. 볼로작전으로 큰 타격을 입은 북베트남군은 한 동안 공중작전에 있어 절대적인 열세에 놓이게 된다.

포드 편대 이후 도착한 램블러 편대는 미그 21 전투기 3대를 격추시키고 기지로 귀환한다. 그러나 이후 도착한 편대들은 운이 없었다. 미그 21 전투기들은 보이

덫에 걸린 미그 21 전투기

05



1967년 1월 2일 오후 3시 볼로작전의 첫 번째 편대인 울즈 편대가 우봉기지를 이륙한다.
(사진 출처 미 공군)

작전 개시일인 D-DAY는 1967년 1월 2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기상악화로 오후 2시로 예정된 출격은 1시간가량 지연되었고, 3시가 되어 서야 최초의 편대인 울즈 편대가 우봉기지를 이륙했다. 뒤이어 파도가 밀어 치듯 시간차를 두고 7개 편대가 이륙할 예정이었다. 울즈 대령이 이끄는 울즈 편대는 미그 21 전투기의 출현이 잦은 하노이 주변 상공에 진입하여, 미그 21 전투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반면 지상에서는 북베트남군의 미그 21 전투기들이 F-105 전폭기를 요격하기 위해 긴급하게 이륙하기 시작했다. 울즈 편대는 구름을 뚫고 올라오는 미그 21 전투기들을 발견했다. 미그 21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들이 대적할 상대가 F-105 전폭기가 아니자 당황하기 시작한다. 울즈 편대는 AIM-7과 AIM-9 공대공 미사일로 미그 21 전투기 3대를 격추시켰고, 연료가 떨어지자 다음 편대인 포드 편대에게 전장을 인계했다. 포드 편대는 미그 21 전투기 1대를 격추시켰다.

맺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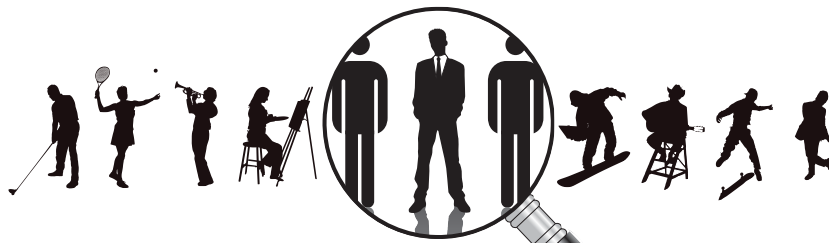
07



미 공군 제8전술 전투비행단은 1992년 제8전투비행단으로 개편되었고 군산 공군기지에 주둔하여 한반도 영공수호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진 출처 미 공군)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는 장차전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라는 인식하에,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위험 임무를 인명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고, 피로와 공포 같은 인간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은 무인기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테러와의 전쟁이든, 대규모 군사력이 동원되는 재래식 전쟁이든 무인기가 전쟁에서 맡는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AF**



잡기에 능하고 싶다?

LEADERSHIP

40대 초반 중견기업 사장의 소원은 뜻밖에도 포커를 아주 잘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골프는 10여 년간 꾸준히 노력한 끝에 내기 골프에서 이기곤 하는데, 갓 시작한 포커는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몇몇 사장 친구들과 포커 게임을 하면 번번히 지질 않나, 카지노에 가면 블랙잭을 잘 못해서 망신을 당하니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코치해 달라고 한다.

포커 게임을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으니 차세대 사장 그룹에 끼질 못해서 거의 매월 있는 해외여행을 같이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보에도 뒤처지게 되고, 사업상의 이런저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포커 같은 것을 잡거나 노름으로 생각하기보다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의 수단, 혹은 사업상 필요한 매너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가 말한 차세대 사장 그룹의 특징을 물으니, 대부분 가업을 이은 젊은 사장들로, 그들은 잡기에 능하다고 한다. 그들은 그런 것들로 은근히 다양한 취미와 여유를 과시하여 상대방의 기를 꺾고, 인기 위주의 삶으로 처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인기와 신뢰의 차이를 물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그에게 다시 그 그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즉 잡기에 가장 능한 사람을 물으니 세 사람을 지목한다. 그 세 사람이 무담보로 큰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 주겠느냐고 물으니 뜻밖에도 어렵도 없다며 펄쩍 뛴다. 당신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아주 멋있게 하는 사람들인데, 왜 돈은 안 빌려 주려느냐고 물으니 믿음이 안 간다는 것이다. 그럼 그 멤버 중에서 기꺼이 큰 돈을 빌려 줘도 괜찮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특성을 말해 보라고 했더니 착하고, 겸손하며, 자기과시를 안 하는, 즉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 한다. 그때 나는 바둑, 골프, 포커 등과 같은 오락이나 스포츠를 직업으로나 즐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과시용이나 내기 게임 등으로 하면서 지나치게 시간이나 자원을 쓰는 경

우에 잡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그에게 물어 보았다. 또 20~40대 젊은이들이 이러한 잡기에 능하기 위해서 낭비한 시간과 노력 등으로 인해 본업이나 특기를 소홀히 했을 때의 문제점, 동료압력의 노예가 되어 항상 바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처음에 그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과는 다르다'며 항변했지만 몇 번의 코칭으로 그는 회사 경영인으로서 인기보다는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은 것 같았으

며 자기가 좋아하는 독서, 등산, 골동품 수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페인팅을 배우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1년 후에 만난 그는 처음에는 그 그룹과의 결별이 아쉬웠다고 한다.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마냥 이것 저것 집적거리며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몇 사람이 자기처럼 과시용 잡기가 아닌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오락으로 휴일을 보내는 자기에겐 합류했다고 자랑스러워 하였다. 특히 과거에는 동료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끌려 다녔으나 이젠 자기 식으로 살게 되니, 불황 속에서도 자신의 회사는 점차 경영이 나아지고 있고 자기관리도 잘 되고 여유로워져서 행복하다며 기뻐하였다. 곁에 보이는 화려하고 그럴 듯한 것은 강렬한 빛으로 우릴 유혹하지만,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지 믿음직스러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것에 시간과 능력과 자원을 투자해 봄이 어떨까? **AF**

전군 제64주년 특집
특별기고-우리 공군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기대한다!
* 기획특집 1

2012. 11. NEWS
* Air Force Monthly

병兵, 생도生徒를 만나다
공군사관학교에 육사·해사 생도가?
세계 사관학교 생도들의 축제 'International Week'
* 기획특집 2

공군 이웃사랑회 소개
* 서용길 회장 인터뷰

참모총장 스케치
* 포토프레임@AF

구자철 선수 근황
* 공군 홍보대사 Zoom In

공군 IN

세계 정상 기량으로 국격 높인 블랙이글 극찬!



건군 제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공군력과 항공산업의 중요성 이례적 강조



행사에 참가한 공군사관생도



열병 중인 참모총장(좌)과 김두만 前 총장(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공군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공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군·호국용사, 군 원로, 장병대표와 시민 등 1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블랙이글 축하공연을 포함해 피스아이, F-15K, KF-16 등 주력 기종들의 축하비행이 펼쳐져 타군 장병들과 일반인들에게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군에게는 더욱 특별했던 건군 제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과 대통령이 극찬을 아끼지 않은 올해 공군의 활약상을 월간 「공군」과 함께 만나봅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군의 날 행사 기념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예순 네 번째 맞는 국군의 날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 앞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6·25전쟁에서 세운 전공으로 오늘 뒤늦게 화랑훈장을 받으신 전개선 일병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으신故 김재옥 선생님의 충혼을 기립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건설하고 영예를 드높인 백선엽 장군님을 비롯한 군 원로와 참전용사, 그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4년 전 '선진정예강군' 건설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으며 우리의 다짐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더 큰 결의를 갖고 전략개념에서 부대구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철저히 검토하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국방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달라진 전쟁 양상과 안보상황에 맞춰 서북도서사령부와 사이버방어사령부, 그리고 합동군사대학교를 새롭게 창설했습니다. 창끝부대 전투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각 군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통합전력의 시너지를 배가하기 위한 삼군 합동성에 기초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 구축함, 신형 잠수함, 그리고 정밀유도무기와 같은 최첨단 핵심전력을 확보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건군 당시 소총 하나 만들지 못했던 우리가 초음속 고등훈련기, 잠수함 같은 최신 무기는 물론 최첨단 전자 개발 기술까지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국산 훈련기 T-50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해서, 세계 여섯 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병 복지를 증진시키고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우리 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국방개혁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고,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앞다투어 올린 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일찍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산업화에 훨씬 앞선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앞선 것은 그 어느 전문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구슬땀을 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신용등급을 올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우리의 튼튼한 안보태세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최전선에서,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이제 지역만리 낯선 땅과 바다에서 국위를 선양하며 '세계 속의 군'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쾌거로 우리 군은 지구 끝까지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진정한 선진강군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쉬노·청해·동명·단비·아크부대는 세계 곳곳에서 국제평화를 지키며 전쟁으로 파괴되고 자연재난으로 고통 받는 나라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프리카 남수단에도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병들은 가는 곳마다 "엄격하고도 절제된 자세",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로 현지 정부와 주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세계인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새겨 넣고 있는 '더 큰 대한민국'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나 또한 우리 장병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창공에서 우리의 국격을 높인 공군 '블랙이글' 팀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영국에서 열린 두 개 국제에어쇼에 우리가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타고 처음 참가해, 고난도 기동과 완벽한 팀워크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월드 베스트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블랙이글 RIAT 에어쇼 최우수상 수상
•故 오충현 대령 사진과 친필 일기

우리 공군의 탁월한 능력과 국산 항공기 T-50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서 입증한 쾌거였습니다.

날로 커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에 맞춰 우리 군도 활동 반경을 더욱 넓히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함으로써 세계로부터 존경 받는 군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군이 진정한 선진정예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역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역사 인식과 영토·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환경은 더욱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축'이 이동하고 동북아의 질서가 새롭게 씌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군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안보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방 전반에 걸쳐 보다 가볍고 빠른 조직, 효율성과 튼튼한 기초를 갖춘 군이 되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래전의 변화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미래전은 첨단 과학기술전쟁과 재래식 전쟁, 그리고 비군사적 위협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첨단전력과 기반전력 구성을 최적화하고 각급 제대들이 전력을 균형적이고 완전하게 발휘하도록 실용적 군사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첨단무기만으로 선진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무장하여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선진정예강군을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에 임기가 없듯이 안보에도 임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와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군은 천안함 46용사의 비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해군과 군은 결의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2010년 순직한 오충현 공군 대령을 다시 한 번 추모합니다. 1992년 12월 동료 조종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에 바로 쓴 일기를 읽고 나는 큰 감동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순직할 경우 가족들이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보상문제로 대의를 그르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군인은 오로지 '충성'만을 생각해야 한다. 비록 세상이 변하고 타락한다 해도 군인은 조국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는 모든 장병들에게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군에 대한 큰 신뢰를 갖게 했습니다.

그의 고결한 나라사랑은 '신안보세대'라고 하는 신세대 장병들의 마음에도 살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도 조국에 돌아와 자원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이미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보며 나는 우리 군과 나라의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우리 군은 늘 국민과 함께해 왔습니다. 울어름 태풍으로 전국 각지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복구 현장에는 언제나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불굴의 파수꾼이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믿음직한 친구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강한 국군,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군을 더 많이 신뢰하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애국심으로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군이 깨어 있기에 오늘도 우리 국민은 편안히 잠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멀리 대한민국 땅에 와 있는 미군 장병들에게도 이 기회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공군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기대한다!



탐색개발 단계에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보라매의 두 가지 형상. C100(위)과 C200(아래)

금년은 '한국 공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지난 9월 26일에 있었던 건군 제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식 연설만 봐도 그렇다. 그날 이 대통령께서는 이례적으로 공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공군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소총 하나를 만들지 못하던 우리가 세계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성공리에 개발하고 인도네시아에 16대를 수출하기 위해 공군과 국내 방위산업체가 기울인 피땀어린 노력과 눈물겨운 정성에 대해 치하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영국에서 개최된 2개의 국제에어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팀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손으로 만든 T-50에다 우리 공군 특유의 고난도 기동과 완벽한 팀워크를 가미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종기량을 만방에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드넓은 창공을 지배하는 검은 독수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팀은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높이는 동시에 항공기 제조기술의 우월성을 입증해 주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2010년 3월 2일에 순직한 고(故) 오충현 공군 대령의 일기 내용을 일부 언급하며, 그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강조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공군의 모든 전투기 조종사들은 오 대령과 똑같은 자세와 정신으로 애기(愛機)를 몰면서 대한민국 영공수호에 전념하고 있다. 공군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전투기를 몰고 월북하거나 민가에 추락시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단 1건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그들의 확고한 국가관과 사생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지피지기의 관점에서 주변국의 군사동향을 주시하라!

현대전의 양상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은 우리 공군에게 새로운 시대적 미션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단순한 방어 차원에서의 '작지만 강한 조직'이 아니라 전방위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 되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현대전은 과거의 대량살상, 근접지상전투, 쌍방 간의 지리한 소모전으로부터 항공우주력에 기초한 공중 우위 확보 후 가공할 위력의 정밀유도무기를 활용하여 적 중심을 초토화시켜 전쟁의지를 말살함으로써 최소의 피해로 최단기간 내 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위성과 고성능 유·무인 정찰기, 스텔스 전투기 등과 같은 공군 중심 항공우주력 건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항공우주력이 허약하면 천신만고 끝에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국토는 황폐화되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력은 그 자체로 전쟁을 억제하고 적의 도발의지를 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최근 들어 중국, 일본,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는 주변국들 사이에 북핵 문제, 영토 분쟁, 역사 왜곡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과 함께 공군과 해군력 위주의 군사력 증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항공우주력 증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핵심은 국방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해·공군력 위주의 전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5년간 중국의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15%에 육박했으며, 항공모함 라오닝호의 취역, 조기경보기 16대와 공중급유기 30대의 운영, SU-27/30기의 도입, 제5세대 전투기인 J-20/60기 개발, 정찰위성 및 조기경보위성 개발 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헌법 9조의 개정을 통해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기존의 '전수방위전략'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인 '동적 방위전략'을 지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우주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우주의 군사적인 이용과 정찰위성의 개발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중국의 패권 확대와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시키고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항공우주력 증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이미 조기경보기 8대와 공중급유기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기 전투기로 F-35기 선정, F-15/F-2 전투기의 성능개량작업 실시, 신형 공중급



유기(KC-767기) 도입, 전략수송기(XC-2)와 스텔스기인 심신(心神)의 개발에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선군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북한의 위협도 전혀 변함이 없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만천하에 공개한 바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력 차이에 의한 핵심 전투력 차이의 공백을 WMD, 특수부대, 장사전포, 생화학 무기, 사이버전 능력 등 비대칭 전력 증강을 통해 만회하려 하고 있다. 광명성 3호 발사를 비롯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붓에는 붓, 칼에는 칼'로 대응해야만 하는 게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공고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쟁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에 일체의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유비무환의 자세다.

지금 우리들의 당면과제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의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유사 시, 조기에 전장(戰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타격전력과 정보감시·정찰전력의 확보다. 둘째는 동북아 주변국들의 항공전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적인 공군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작권 전환 시대에 대비해서 그동안 주한 미군의 공군력에 의존해 왔던 군사능력을 점진적으로 우리 공군이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우리 공군 주도로 연합항공우주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넷째는 공군력의 완전성을 기반으로 국격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과 국익증진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부터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F-X사업의 확고한 추진이다. 이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량과 조국에 대한 무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최정예 빨간 마후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한국 공군력의 획기적인 증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 공군 전투기들의 작전 변경과 체공시간의 연장

을 위한 공중급유기의 도입, 초대형 수송기/장거리 탐색구조 전력의 확충도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국방개혁의 거시적인 틀 속에서 우리 공군에 대한 위상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전쟁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 주변국들이 항공우주력을 증강하면, 우리도 그에 걸맞게 공군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전력 확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상부 의사결정체계의 균형적 배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자주국방의 속원이 실현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 한 가지를 냉철하게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421년 전, 선조 임금은 일본에 갔다가 귀국한 조선통신사 일행에게 맨 먼저 던진 질문이 “도요토미는 글을 읽을 줄 아는가?”였다고 한다. 이 때 선조가 생각한 것은 ‘붓이 칼보다 우위에 있다’는 문화적 자부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는가? 선비들의 붓이 왜군의 칼날에 무참히 베어졌고, 수도 한양은 20일만에 왜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齒)에는 이, 붓에는 붓, 칼에는 칼’로 대응해야만 하는 게 바로 전쟁이며 전투다. 다시는 이 땅에서 선조 임금의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 내가 우리 공군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간절하게 염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AF**



일본이 개발중인 스텔스기 심신(心神)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0

본 기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병兵, 생도生徒를 만나다

병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생도생활의 궁금증 타파

각자 인생의 길이 정해지기 시작하는 20대 초반. 누군가는 재수를 하고, 누군가는 명문대를, 누군가는 꿈을 위해 대학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사관학교에 간다. 비슷한 나이이지만 확연히 다르고 특별한 길, 공군의 병사들과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실제로 비슷한 또래이다. 물론 대학생 활동을 하다 군에 입대한 병사들이 공사생도들을 다른 대학의 또래 친구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생도들이 임관하면 자신의 상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공사출신 장교들의 모교이기도 한 공군사관학교. 실제로도 나는 지금 여러 명의 공사출신장교 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생도들과의 만남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생? 군인? '생도는 생도다'

생도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었던 점은 이들을 대학생으로 봐야 하는지, 군인으로 봐야 하는지였다. 공군사관학교는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교육 과정인 동시에 공군의 정예 장교들을 배출하는 장교양성기관이기도 하다. 때문에 나는 생도들이 나 또래의 대학생 같은 사람들일지, 아니면 군인에 가까울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생도들과 인터뷰하면서 최근에 나온 자동차 광고 카피가 떠올랐다. '세상에 없는 클래스, 아반떼'라는 광고였는데, 아반떼를 소형차로 분류할 것인가, 중형차로 분류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아반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클래스가 된다는 의미로 마무리되는 내용이었다. 이 광고와 생도들에 대한 나의 고민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내가 내린 결론은 어떤 틀에도 넣을 수 없는 특별한 클래스, '생도는 생도다'였다.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는 뽀빠한 삶

대학학위과정과 장교양성과정을 동시에 해내야만 하는 특수성 때문인지 생도들의 일과는 아주 타이트했다. 공군의 차세대 리더로 거듭날 이들에게는 학업뿐만 아니라 군사훈련, 체력단련, 문화소양 등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과만으로도 벅찼던 입대 전 나의 대학생생활을 돌이켜 보면 생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나보다 나이 어린 생도들임에도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갖고 직업군인이 될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존경스러웠다. 내로라 하는 엘리트 그룹인 생도들이 장차 공군의 조종사는 물론 지휘관으로 성장해 국가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 든든했다.



낙산산 공수훈련을 받는 생도들의 모습. 생도들은 1학기가 끝나면 학년별로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때문에 방학은 4주만 주어진다.



관속비행 체험을 하는 생도들의 모습. 비행훈련은 졸업 이후에 시작되지만, 생도생활 중에도 입문훈련기(T-103) 관속비행, 비행시뮬레이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패러글라이딩 훈련을 받는 생도들.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장차 조종사로 성장할 생도들의 비행감각 향상을 위해 패러글라이딩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생도들도 있다.



영어회화 수업 중인 생도들. International Week 참가 해외 생도들과의 세미나를 잠시 참관했는데, 통역없이 진행할 만큼 생도들의 영어실력은 뛰어났다.



학과 공부를 하고 있는 생도의 모습. 생도들에게는 학과 공부를 위한 개인 노트북이 지급된다. 개인 핸드폰도 휴대할 수 있다. 부대 안에서 장교양성교육을 받는 이들이지만, 또한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기도 한 생도들. 두 가지를 모두 해내야 하는 생도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공사 도서관. 시청각 자료실과 세미나실 등 대학 도서관 수준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생도들과의 유쾌한 대화

생도들을 만난 것은 공군사관학교 축제인 성무제의 첫째날이었다. 대학교 축제와 비슷하긴 했지만 외부인 없이 생도들 스스로 꾸미는 행사라서 뭔가 독특한 느낌이 들었다. 축제기간임에도 선배 생도들과 상관들에게 각듯하게 경례하는 모습이나, 넥타이를 맨 정돈된 복장으로 축제를 둘러보는 모습은 특별한 존재인 그들을 대변하기도 했다. 생도들이 자주 찾는 커피숍에서 문명언, 신명호, 임푸름 생도를 만났다. 나와 비슷한 또래지만 미래의 상관이라는 생각 때문에 딱딱할 것만 같던 인터뷰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Q 먼저, 공사 입학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사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문명언 생도) 보통 8월 정도에 언어, 수학, 외국어로 평가하는 1차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 2차 전형으로 체력검정과 신체검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3차 전형은 수능 성적을 포함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충분한 체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Q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문명언 생도) 평균 2등급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생도들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Q 일반 대학과는 조금 다른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임푸름 생도) 장교양성과정이기 때문에 입학 전에 5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학과는 다르게 2월에 입교를 하는데, 4년 선배들의 졸업식을 마친 3월에 첫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학과수업은 대학과 동일합니다.

Q 사관학교에 진학할 때 대부분 조종사를 꿈꾸나요?

(문명언 생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종 자원이 90%, 정책요원이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사관학교에 진학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었나요?

(신명호 생도)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많죠. 하지만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깐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Q 생도 1학년 때는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문명언 생도) 생도생활은 대학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동시에 장교를 길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과와 내무생활이 공존하게 됩니다. 1학년 생도 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쉬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군에 적응하는 과정인 셈이죠.

Q 선후배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군기도 존재하나요?

(신명호 생도) 선후배 간에도 엄연히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관으로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기가 있어야겠죠? 자치근무제도가 있어서 근무생도들이 후배 생도들의 교육을 맡게 됩니다.

Q 여생도는 몇 명이나 되나요? 공대 아들이 같은 대우를 받기도 하나요?

(신명호 생도) 여생도는 한 학년에 10% 정도(15명 내외) 됩니다. '공대 아들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혜택이나 대우는 없습니다. 남생도와 차이를 인정해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Q 캠퍼스 커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임푸름 생도) 아무래도 남자가 많으니 여생도들은 대부분 CC를 하는 편입니다.

Q 생도들만의 특별한 데이트 방법이 있나요?

(신명호 생도) 생도라고 해서 여자친구 앞에서까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보통 20대들이 하는 연애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Q 집에는 얼마나 자주 갈 수 있나요?

(임푸름 생도) 매주 금요일 일과가 끝나면 일요일 저녁까지 외박이 주어집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육사·해사 생도가?

int

통합교육 삼군사관학교 생도 인터뷰

열과 오를 깎듯이 맞춰 부대행동을 하는 공사 생도들 무리에 낯선 제복을 입고 있는 생도들이 눈에 띈다. 복장은 다르지만 어깨에 달린 한 줄의 계급장이 1학년 생도임을 이야기해 준다. 비록 소속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지만 공사 생도들과 함께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는 타군 생도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관학교 통합교육은 삼군의 합동성 강화를 목표로 예비 장교인 생도들이 타군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입학한 1학년 생도들은 3개 조로 나뉘어 각군 사관학교를 각각 2개월 반씩 나누어 생활하게 된다. 4차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은 어느덧 3차에 접어들었다. 어색할 듯 모하게 어울리는 삼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만났다.



“같은 차반 동기들이 모교 동기들보다 더 친해요”

인터뷰에 참가한 생도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는 송준 생도(공사 64기), 재수를 통해 육군사관학교의 꿈을 이뤘다는 이보미 생도(女, 육사 72기), 어릴적부터 바다를 동경했다는 해군사관학교 권동규 생도(해사 70기)였다. 이들은 모교에서 1차 교육을 마친 후 해군사관학교로 이동해 2차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는 공군사관학교에서 3차 교육중, 마지막 4차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있을 예정이다. 학과교육은 교수진이 달라질 뿐 내용이 같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이들이 느끼고 있는 통합교육의 본질은 '사람'이었다.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된 계기는 모두 달랐지만, 지금은 모교 동기들보다 더욱 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여름방학 때는 모교 동기들보다 같은 교육 차반 타군 동기들을 더 많이 만났어요.” 육사 이보미 생도는 이들에게 ‘동기’의 개념이 이미 공·육·해사의 동기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공사64기, 육사72기, 해사70기는 자체 동기회 이외에 통합 동기회도 운영되고 있다.

erview



“모교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졌죠”

모두가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과 규정도 공·육·해사 1학년 생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생도들이 내무생활을 하는 생활관에도 공·육·해사 생도들을 함께 편성하기 때문에 타군 사관학교 생도들에 대한 특혜나 차별은 없다. 통합교육을 받지 않았던 선배 생도들이 타군 후배들을 바라보는 견해를 묻자 해군사관학교 권동규 생도는 “솔직히 저희들이 2개월 반만 공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교감을 느끼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안면을 익혔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장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며 장점을 설명한다. “하지만 선배들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라 저희의 특별한 상황을 모두 이해해 주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모교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선후배간의 정을 느끼기에 2개월이라는 시간은 짧기 때문이다.

“후배를 존중하는 공사 문화가 인상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받다보면 어쩔 수 없는 비교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공사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묻자 육군사관학교 이보미 생도는 “공사의 최고 장점은 융통성인 것 같아요. 또한 후배들을 존중해 준다는 점도 배울 점이 많지요. 멘토멘티 제도도 잘되어 있어서 후배생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육사는 선후배간의 결속력이 강하고, 분위기가 합리적인 것 같아요”라며 모교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아무리 공사에 장점이 많아도 자기 학교가 가장 좋다는 것이었다. 1학년 생도에 불과하지만 모교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했다. 해군사관학교 권동규 생도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입고 훈련을 받으면서 선배들과 정이 들었고, 정이 들자마자 떨어지게 되면서 더 애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어느 학교 선배들이 가장 무섭다는 질문에는 해군사관학교 선배들이 가장 엄격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군 문화의 장점만을 모으고 있습니다”

1학년 생도들은 통합교육의 취지와 목표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짧은 시간임에도 각군을 보고 느끼면서 생각하는 기회도 많았다고 한다. 어린 생도들이 모교에 적응하기도 전에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의견을 묻자 공군사관학교 송준 생도가 똑부러진 답을 내어 놓는다. “모교에서 교육을 받다 타군 사관학교에 가면 사고가 경직되어서 문화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를 중에는 각군 사관학교에서 좋은 문화와 교차해 할 문화를 정리하는 동기가 있는데, 저희가 선배가 되면 각군의 장점들만 모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박에 민감한 어쩔 수 없는 1학년 생도랍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의 당사자로서 본인들이 이 과정을 통해 얻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깨닫고 있는 각군의 사관생도들. 여러 환경에 적응하면서 금세 성숙한 느낌이였다. 하지만 통합교육의 단점을 묻자 비로소 1학년 생도 같은 답변이 속사포처럼 돌아왔다. “육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해택은 다음 차수 생도들이 받아요. 공사에서도 무용기에 우승했는데 특별은 다음 차수 생도들이 받구요. 두발 규정도 용인되는 수준이 모두 달라서 스타일이 계속 바뀐답니다.”



1학년 생도들에게도 매주 금요일 외출을 허용하고 있는 공사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세 명의 생도들. 처음으로 통합교육을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는 삼군을 가리지 않고 훌륭한 선배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들. 시간이 지나 이들이 지휘관이 되었을 때, 삼군의 합동성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인터뷰를 마쳤다.

Global Air Force Academy *International Week*

각국 생도들이 한자리에, 사관학교 생도들의 축제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세계 사관생도들의 축제인 International Week가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International Week는 터키, 영국, 호주, 중국 등 총 7개국 사관생도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공군사관생도들과 생활하면서 20전 투비행단 등 주요 작전부대 견학, 비행시뮬레이터 탑승 체험, 패러글라이딩 체험 등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생도 자치회 주관으로 열린 국제교류 세미나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한 정다연 생도는 유창한 영어실력을 과시하며 초청국 생도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외생도들의 공군사관학교 체험기를 사진과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Tchad Francois 생도(영국 공군대학)

▶ **Q1** 이번 International Week에 참가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영국 공군대학에서 2012 한국 공군 International Week에 참가하는 생도를 뽑았는데, 운 좋게도 제가 선발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Q2** 한국 공사에서의 생활이 영국 공군대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먼저 영국 공군대학은 장교가 되기 위한 단계로서 한국 공사와 달리 학사 학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생도들은 민간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공군대학에 입학하거나 공군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학위를 받기 위한 공부를 하며, 30주의 군사훈련 이후에 임관하게 됩니다.

▶ **Q3** 한국 생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먼저 한국 생도들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관학교 생활을 단순히 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학업과 군사훈련을 동시에 소화해 내는 모습은 우리 또한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생도들의 친절함과 배려에 타국이지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돌아갈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Q4** 한국을 방문한 느낌은 어떤가요?

일단 너무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광지를 방문했는데 모두 저마다 뜻이 담겨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또한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오기 전에 했던 걱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 **Q5**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요?

일단 한국 생도들이 도열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아주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강한 패기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DMZ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한국에서의 군의 중요성 등을 배울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기억에 아주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 **Q6** 영국에 돌아간다면 후배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과정인가요?

기회가 된다면 내가 다시 오고 싶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웃음). 후배들에게 꼭 추천해 줄 것입니다. 영국 공군대학에서 진행되는 해외 방문 프로그램 중에 단연 최고로 뽑을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포토프레임@AF

2012 국정감사 수감

2012년 공군본부 국정감사가 10월 18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모총장은 “공군은 공중 및 지·해상 도발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공격 무장의 신뢰성이 보장된 시스템 보강을 통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전력증강을 위해 공중급유기와 보라 매사일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계룡학사 원생 격려 “더 큰 꿈 향해 달려주길”

참모총장은 9월 29일 추석을 앞두고 논산시 화악리에 위치한 보육시설 계룡학사(원장 유창학)를 방문하여 원생들을 위문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60여 명의 원생들을 만나 “지금은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공군 - 전경련, 예비역 취업지원 위해 협력기로

참모총장은 10월 4일 공군본부를 방문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부회장과 예비역의 취업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하는 공군 장기복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기업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두 기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IR FORCE MONTHLY

2012. 11. NEWS

보라매공중사격대회 전투기부문 개최

공군 최대의 공중전투경연대회인 보라매공중사격대회가 지난 10월 8일 시작되었다.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사격대회는 순 전투비행단의 대대에서 교관 조종사, 4기 리더, 2기 리더와 새내기 조종사인 요기 조종사를 포함한 240명의 조종사가 참가해 다양한 전장 상황 속에서 공대공 · 공대지 분야의 종합적인 기량을 겨루게 된다.



**항의원, 최첨단 비행환경 적응장비 도입
실제 비행과 가장 유사한 환경 제공!**



항공우주의료원은 지난 10월 12일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에서 최첨단 공중승무원 비행환경 적응장비 6종에 대한 도입 행사를 가졌다. 신형장비는 F-15K와 KF-16 전투기 조종석과 시뮬레이션 기능을 구비한 가속도 내성 강화 장비 등으로 실제 비행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항공기의 기종, 조종사의 경력과 임무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설립 합의서 체결
미래 항공전략연구기관 만든다**



공군과 연세대가 지난 10월 5일 미래항공산업과 군 항공력 발전을 선도할 '항공전략연구원'을 설립하고 항공전략과 항공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펼치고, 전문가 양성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항공전략연구원은 연세대학교 본부직속 연구기관으로 개원될 예정이며 정치외교센터, 안보전략센터, 경제산업센터, 과학기술센터 등 4개의 연구센터와 사무국, 대외협력국으로 편성된다.

**공사 생도,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최우수상 수상
7개 분과 중 2개 분과 휩쓸어**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육군사관학교와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제11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서 공사 3학년 진서영, 황동민 생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안보토론대회는 서울대학교 등 전국 55개 대학 329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총 7개 분과에서 발표, 토론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최우수상을 받은 생도 이외에도 3학년 정지수, 윤필상 생도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19개국 주한 외국무관단 1전비 방문
T-50 비행훈련체계 우수성 알려**



미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 주한 외국무관단 40여 명이 10월 16일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한 고등비행교육과정과 정비현장을 견학했다. 캐나다 국방무관 잭 모노(Jacques Morneau) 육군 대령은 "한국 공군이 우수한 비행교육체계와 완벽한 정비 지원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투조종사를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사, '비타민 건강의 날' 행사
'금연 · 절주 · 걷기 코칭' 책임진다**



교육사 항공의무전대가 '장병 건강증진은 전투력 발휘의 근원'이라는 모토로 지난 11일 '비타민 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인병 예방법과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익힐 수 있는 '건강체험관'과 '나도 한대! 금연! 코너'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함께 진행된 '녹색걷기시간'에는 올바른 걷기운동방법 교육 후 행사 참가자들이 3km를 함께 걷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독도전문가 김삼권 소령, 상금 전액 독도경비대 기부
전문성도 선행도 으뜸**



지난 10월 10일 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제3회 위국헌신상을 수상한 합동군사대 공군대학 교관 김삼권 소령이 상금 1,000만 원 전액을 독도경비대에 기부했다. 보라매 리더십센터 교관으로 근무하던 2003년부터 지금까지 374회에 달하는 독도강연을 해온 그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독도경비대 청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군 장병 · 예비역

돕기 위해

온 힘 다할 터

공군사랑회
서용길 회장 인터뷰



공군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생활이 어려운 공군 장병과 예비역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2004년 4월 창립된 공군사랑회가 어느덧 9년차를 맞았다.

학사장교회 48기 임원과 55기 임원 10명이 전부였던 회원도 700명으로 늘어났다.

총 기부금액은 1억 1천 7백만 원에 달한다. 올해 초에는 2,500만 원을 공군 장병들을 위해 써달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순수한 봉사모임임에 큰 자부심을 갖고, 회원들의 기부금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임원들의 활동비도 각자 부담한다는 공군사랑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장병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더 많은 분들이 사랑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서용길 공군사랑회장을 만나봤다.

공군사랑회는?

창 립 : 2004년 4월

회 원 수 : 700명

총 기부금액 : 1억 1천 7백만 원

수혜인원 : 공군현역 105명, 예비역 25명

회원자격 : 공군 현역/예비역과 공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은

02-862-7055/admin@aflove.co.kr로 연락주세요.



Q. 공군사랑회가 생겨난 계기가 있나요?

A. 공군사랑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학사장교회입니다. '99년 공군본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사장교회에서 매년 연말 비행단 위문을 가곤 했었는데요, 2004년 학사 48기 임원과 55기 임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공군을 위해 더 큰 봉사를 해보자는 뜻으로 공군사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Q. 주요 사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A. 환경이 어려운 공군 장병들과 예비역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군 순직 조종사 가족위로행사, 전투비행단 활주로 주변 소음 피해 주민 위로행사, 6·25 출격 조종사 및 참전 유공자 위로행사, 전공상 유공자 위로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공군사랑회의 특징이 있다면요?

A.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한 봉사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원자격도 제한이 없습니다. 공군을 사랑하고 공군 장병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재까지 활동 중에서 가장 뜻깊은 일이 있었다면요?

A. 18전투비행단 주변 마을을 방문해서 에어컨 두 대를 설치해 주고, 노인분들

50분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든 다섯의 할아버지께서 항공기 소음과 비행단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순직조종사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였는데, 한 순직조종사의 어머니께서 저희의 도움에 감동하시며 되레 회원이 되시겠다고 하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또한 저희들보다 더 의연한 자세로 성금을 고사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공군사랑회는 순직조종사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Q. 공군사랑회의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어려운 공군 장병과 예비역을 돕는 일을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규모를 더 확대하려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장병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력이 생기면 6·25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나라에 대한 헌신적인 활동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공군 장병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A. 많은 분들이 공군 사랑의 참 뜻을 이해하시고 회원으로 참가하셔서 환경이 어려운 현역과 예비역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공군사랑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습니다. 아낌 없는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F**

대한민국 공군 창군 이래
000명의 조종사들이 임무 수행 중 전사 또는 순직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 이어 순직한 故박명렬 소령과 故박인철 대위.
'자신이 순직하더라도 가족들은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일기로 주변을 울린 故오충현 대령.
에어쇼 현장의 인파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故김도현 소령 등.

그들은 모두 젊은 아내의 대들보같은 남편이었고
어린 자녀의 수퍼 히어로였습니다.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순직조종사 자녀들의 꿈을 후원합니다.



하늘사랑 장학재단
THE HANULSARANG SCHOLARSHIP FOUNDATION
후원 문의 : 042.552.1330, 1335, 1316
www.airforce.mil.kr

2012

공.지.해 합동작전 세미나

Air-Ground-Sea Joint Operation Seminar



- 일자 : 2012년 11월 15일(목)(09:30~15:30)
- 장소 : AMOR Convention Hall(원주시 태장동)



■ 발표주제 : 합동성 강화방안 / Digital 공·지·해 합동작전 수행체계 발전

■ 참가신청 및 문의

- 전 화 : 033)730-5630 (일반), 934-5630 (군)
- E - Mail : hpk0715@af.mil (군)
- 신청마감 : 2012년 11월 13일(화)

■ 주 최 : 제 36 전술항공통제전대 공지합동작전학교

Republic Of Korea Airforce
36th Tactical Air Control Group Air to Ground Operations School

F-5 야간비행

어둠이 내리고 모두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지축을 흔들 것 같은 굉음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섬광을 뿜어내며 하늘로 치솟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F-5 전투기의 야간비행.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고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AF**





11 2012
NOV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씨스타, 공군과 함께 춤을!



11 2012
NOV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하늘을 향한 꿈, 우주로 향한 도전 한국항공소년단



가입문의

한국항공소년단 홈페이지

<http://www.yfk.or.kr>

한국항공소년단 지방연맹 안내

- 서울연맹 070-8129-8856
- 경기연맹 02-953-7543
- 충북연맹 043-224-5599
- 전북연맹 070-8821-7016
- 부산·경남연맹 051-364-5988
- 대전·충남연맹 042-482-1618
- 대구·경북연맹 053-422-8875
- 광주·전라연맹 062-374-5825



한국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

홍보대사 Zoom In

공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응원

재활훈련 중인 구자철 선수가 특별한 응원으로 힘을 얻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홍보대사인 구자철 선수의 부상소식에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것. 구자철 선수는 트위터를 통해 “곧 그라운드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인데 성일환 공군참모총장님의 응원을 받아 공군 홍보대사답게 더 날카로운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공군 파이팅!! 대한민국 모두 파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표지모델로 나선 공군지 9월호와 참모총장이 보낸 격려메시지 인증 샷을 올렸다. 한편 구자철 선수는 공군 트위터 (@afplay)와 맞팔을 맺었다.

공군 홍보대사 서포터즈 선발

구자철 선수를 응원하기 위한 공군의 공식 서포터즈가 생겨난다. 공군은 공군 홍보대사 서포터즈 30명을 선발해 구자철 선수를 후원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인터넷과 SNS를 활용해 구자철 선수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며, 홍보대사 관련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발대식은 11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구자철 부상 복귀 임박

구자철 선수의 그라운드 복귀가 임박한 듯하다. 구자철 선수는 4일 트위터에 “자전거를 이용하니까 너무 좋다.”는 글과 함께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올렸으며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드디어 오늘 조깅을 시작했다. 발목 다친 데는 통증이나 불안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냥 미친 듯이 달리고 싶다. 가슴이 터질 듯이 고통스러워 더는 못 가겠다고 포기하자라고 말이 나와도 꼭 참고 또 참고 계속 달리고 싶다.”는 글을 남기며 그라운드 복귀에 대한 열망을 내비쳤다. 구자철 선수의 복귀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속팀은 여전한 부진, 강등의 위기

구자철 선수가 부상으로 팀전력에서 이탈한 사이, 소속팀 아우크스부르크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0월 26일 현재 아우크스부르크는 1승 3무 4패로 분데스리가 총 18개팀 중에 16위를 달리고 있다. 분데스리가는 총 18개팀이 34경기를 펼치며, 17,18위는 다음 시즌에 자동으로 강등된다.

독일까지 퍼져나간 한국팬들의 성원

구자철 선수가 한국으로부터 날아온 팬들의 사랑에 트위터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담주부터 재활시작인데 배나오겠다. ㅋㅋ 잘먹을게요. 고마워요^^”라는 글과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팬들이 보내준 한국과자, 제주도초콜릿, 카레, 라면 등이 담겨 있었다. AF



SNOW WHITE & THE HUNTSMAN

* Hollywood English

개그콘서트의 무한도전

* Air-Supply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 인생은 아름다워

11월의 문화행사

* Preview

36.5

Culture



얕은 사고 vs. 깊은 사고

미래학자 리처드 왓슨은 책 〈퓨처 마인드(Future Mind)〉에서 ‘얕은 사고(shallow thinking)’가 ‘깊은 사고(deep thinking)’를 압도해가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디지털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의 생각의 속도도 덩달아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독서보다는 인터넷에 의존해 정보를 손쉽게 얻고, 조각 지식에 맞들이면서 ‘깊은 사고’보다는 ‘얕은 사고’에 길들여진다는 것이며, 그런 결과로 현대인이 점점 창의적 사고력을 잃어가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다는 진단이지요.

검색엔진과 마법의 거울

그림 형제는 1812년에 〈백설 공주〉를 썼습니다. 200년이 지나 그걸 2012년 버전으로 각색한 영화가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Snow White and the Huntsman)〉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번 지면에 리처드 왓슨의 진단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마녀가 애용하는 ‘마법의 거울’이 우리 시대에 갖는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백설 공주〉의 명대사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지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Mirror, mirror on the wall. Who is the fairest of them all)?”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백설 공주〉에 나오는 마녀의 거울은 오늘날의 검색엔진의 원조이지 않을까요?

리처드 왓슨의 통찰력 높은 진단은, 책을 즐겨 읽으면 ‘깊은 사고’를 하게 되는 반면 인터넷에서 검색만 즐기다 보면 ‘얕은 사고’에 길들여지기 쉽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지요. 우리가 ‘깊은 사고’로 ‘자기 발견’의 노력을 하다 보면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고, ‘얕은 사고’로 ‘자기 계발’만 즐기다 보면 창의적 사고의 잠재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역설하는 것이고요. 책을 멀리 하고 검색만 가까이 한다는 건, 어쩌면 마녀가 유혹하듯 내미는 사과에 독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입맛을 다시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상상력으로 빛은 과감한 각색과 비틀기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Snow White and the Huntsman)’은 원전에 충실한 기존의 〈백설 공주〉 버전들과는 큰 차이가 날만큼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 출중한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하기 위해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은 과감한 각색과 비틀기를 즐깁니다. 영화의 도입부는 예상대로 왕비가 소원을 비는 장면으로 커튼을 엽니다. “백설처럼 희고, 입술은 피처럼 붉고, 머리는 까마귀 날개처럼 검은 아이(a child as white as snow, lips as red as blood, hair as black as a raven's wings)를 갖게 해주세요.” 왕비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주가 태어난 지 몇 해 뒤 왕비는 병으로 눈을 감습니다. 영화는 초반부터 이런저런 설명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려는 듯 속전속결로 마녀를 등장시킵니다. 왕비를 잃은 왕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유령 군대’가 쳐들어오는데요, 왕은 웅맹스럽게 적을 무찌르고 유령 군대의 여자 노예를 풀어줍니다. 아니 그런데 이 노예(샤를리즈 테론)가 눈부시도록 예쁜 게 아니겠습니까. 왕이 한눈에 반해버리겠

지요? 그녀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위장한 마녀입니다. 왕비가 된 마녀는 첫날 밤 심장을 찔러 왕을 죽입니다. 그리곤 여왕에 오르자마자 어린 ‘백설 공주’를 원작처럼 ‘내쫓지 않고’ 높은 뽕죽탑에 가둡니다. 훗날 나이가 차면 공주의 젊은 숨결을 뺏으려는 계략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 마녀는 ‘검색자의 자세로’ 한걸 진화한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의 대답은 역시 “백설 공주!”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울이 덧붙입니다. “여왕님이 마력이 약해지는 건 공주 때문이옵니다(She is the reason your powers wane).”

매혹적인 새 캐릭터, ‘헌츠맨’의 등장!

마녀는 총복처럼 따르는 동생에게 처녀가 된 ‘백설 공주(크리스틴 스튜어트)’를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동생이 “마법은 큰 대가를 요구한다(Magic comes at a lofty price).”며 경고합니다. 하지만 마녀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점점 커지기 마련이지(And the expense grows).” 영원히 아름다워지기 위해 마녀가 다른 처녀들에게도 했던 것처럼 자기의 심장을 뜯어먹으려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공주는 정확히 구멍을 이용해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아뵘새, 공주가 달아난 곳이 마침 ‘죽음의 숲’입니다. 마녀는 그 숲을 잘 아는 전사 출신 사냥꾼인 ‘헌츠맨(크리스 험스워스)’을 따라 붙이는군요. 어릴 적 소꿉동무인 윌리엄 왕자는 공주의 생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는 묘수를 짜내 반란군 무리에서 빠져 나와 자신을 활잡이라고 속이곤 마녀의 군대에 들어가 공주 사냥에 가세합니다. 일곱 난쟁이들, 그리고 숲속의 온갖 요정들이 공주를 지켜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합세합니다. 자, 이쯤에서 마녀가 사과 광주리를 들고 나타날 때가 됐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녀에 앞서 윌리엄 왕자가 먼저 등장하고, 어릴 적에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따서 나눠먹었던 것처럼 왕자가 공주에게 사과를 내밉니다. 재회의 기쁨에 취한 공주는 사과를 맛있게 깨웁니다. 윌리엄의 얼굴이 뒤틀리더니 댄 얼굴이 되는군요. 예상하셨듯이 왕자는 마녀입니다. 뒤늦게 ‘헌츠맨’과 진짜 윌리엄이 달려옵니다. 왕자가 서둘러 공주에게 입맞춤합니다. 그런데 꿈쩍도 안 합니다. 이번엔 ‘헌츠맨’이 입맞춤합니다. 공주가 반응할까요? 깨어납니다. 그 내막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가려둡니다.

“내가 여러분의 검이 되겠습니다!”

공주가 영웅처럼 일어서겠지요? 공주가 성에서 쫓겨난 반란군을 상대로 찌렁찌렁 외칩니다. “제가 여러분의 검이 되겠습니다. 그 검은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단련된 검입니다(I'll become your sword. Forged by the fierce fire that I know is in your hearts).” 아, 결속을 촉구하는 훌륭한 언어입니다. 공주는 군대를 이끌고 빼앗긴 성을 향해 돌격합니다. 결말 또한 스포일러입니다. ‘마법은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경고를 끝내 무시하겠지요? 그런데 ‘Magic comes at a lofty price’를 읽다보면 ‘magic’이 은유적 의미에서 ‘검색’으로도 읽히지 않는지요? **AF**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남자들을 위해...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지금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은 남자가 있다면, 그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무엇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못할 일이 없다. 약 천 년 전, 유럽에는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명약이 있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귀여운 큐피드가 사랑의 화살을 쏘아 남녀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사랑의 묘약을 마신 사람은 누구든 열병을 앓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묘약이 얼마나 영험한 효능을 지녔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면 스스로를 죽음에 빠뜨리게 하는 파괴력까지 지녔다는 것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이 사랑의 묘약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다.

아일랜드의 공주였던 '이졸데'는 적국 콘월의 왕 '마크'에게 시집을 가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콘월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아일랜드는 공주를 적국의 여왕으로 보냄으로써 화해를 도모한 것이다. 하지만 이졸데에게는 그보다 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콘월로 가는 배를 탄 이졸데는 항해를 맡은 '트리스탄'과 함께 사랑의 묘약을 마신 것이다. 사실 이 묘약은 나이 많은 왕에게 시집가는 딸이 걱정되었던 이졸데의 어머니가 만든 것. 하지만 트리스탄이 묘약을 마시면서 두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사랑을 시작한다.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은 그 시작부터 불안한 것이었으니,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때로 콘월 왕의 자비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어찌 되었든 이 묘약을 마시기만 하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니, 그 얼마나 황당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인가... 하지만 이 묘약을 실제로 믿었던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순진한 '네모리노'였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아디나'가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를 읽어주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아디나는 네모리노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 대지주의 딸이자, 총명하고 귀여웠던 아디나는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 수많은 남자 중에 한 명이었던 네모리노는 단 한순간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네모리노의 마음을 알면서도 냉담하기만 했던 아디나는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법이 없었다. 오늘도 냉정한 표정을 짓는 아디나를 보며 네모리노는 사랑의 묘약을 꿈꾸고 있는데, 마침 마을에 떠돌이 약장수가 찾아온다.



무슨 병이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며 떠들어내는 약장수에게 네모리노는 사랑의 묘약을 달라고 말한다. 한눈에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청년임을 알아차린 약장수는 포도주를 건네며, 내일이면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 말한다. 포도주인 줄도 모르고 신나게 약을 마신 네모리노는 거나하게 술에 취해 아디나에게 큰소리친다. 내일이면 그녀의 마음을 얻을 것을 믿으며 자신만만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네모리노에게는 쟁쟁한 경쟁자가 있었다.

아디나에게 구혼했던 또 다른 경쟁자는 이웃 마을의 '벨코레 하사관'. 순진한 네모리노와 다르게, 벨코레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군인이었다. 분대를 이끌고 다니며 늙은 기세를 지냈던 벨코레는 아디나에게 청혼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해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남자였다. 신비로운 사랑의 묘약을 믿었던 가난한 네모리노와는 정반대였다. 술에 취한 네모리노의 막무가내 행동에 화가 난 아디나는 헛길에 벨코레 하사관과의 결혼을 약속하는데, 벨코레 하사관이 내일 당장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두 사람은 그날 밤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아디나의 갑작스러운 결혼소식을 들은 네모리노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사실 약효가 나는데 하루가 필요하다는 것은 약장수가 줄 행랑을 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 하지만 돌팔이 약장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네모리노는 또다시 그를 찾아가, 오늘밤 당장 효험이 나는 사랑의 묘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약장수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네모리노는 군에 입대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군입대 신청서를 쓴다. 그렇게 해서 네모리노는 또다시 사랑의 묘약으로 둔갑한 포도주를 마신다.

그런데 이번에 마신 약은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았다. 마을의 여인들이 네모리노를 둘러싸고 웃음을 지으며 호의를 보이는

것이였다. 이제 드디어 묘약이 효능을 드러낸다고 자신만만해 하는데, 사실 네모리노의 삼촌이 그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여인들이 그의 환심을 사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한 네모리노는 그저 사랑의 묘약 덕분이라고 믿고 기분이 좋아 한껏 들떠 있다. 이제 아디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아디나는 네모리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돌팔이 약장수를 찾아간다. 약장수는 이 세상에 사랑의 묘약을 믿는 바보도 있다며, 그 바보가 마지막 남은 돈까지 이 약을 사는데 썼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약장수의 이야기에 네모리노의 진심을 깨달은 아디나는 멀리서 네모리노를 지켜보며 눈물짓는다. 그리고 그러한 아디나를 보며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게 된 네모리노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다.

이처럼 뼈저리게 전개되는 〈사랑의 묘약〉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 결국 현명한 아디나가 복잡했던 삼각관계에 종지부를 짓는다. 이 세상에서 네모리노만큼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디나는 네모리노를 찾아가 그의 마음을 받아준다. 아디나와 네모리노의 이야기를 들은 벨코레 하사관은 결혼할 여인을 빼앗겼음에도 그다지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여자는 많고,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디나라는 것이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까지 여인에게 바쳤던 네모리노와는 다른 남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랑으로 열병을 앓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약장수를 찾아갔다. 현명한 아디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묘약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묘약 덕분에 아니, 사랑의 묘약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덕분에, 착한 청년 네모리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다. **AF**

GAG

〈개그콘서트〉의 무한도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음악 중 하나는 KBS 〈개그콘서트〉의 마지막 연주일 것이다.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개그콘서트〉의 마지막에 연주하는 이 멜로디는 모든 이들에게 〈개그콘서트〉의 끝, 동시에 일요일이 끝난다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직장이든 학교든, 월요일에 어딘가 나가야 할 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연주를 듣고 잠을 청해야 한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때는 토요일에 방송된 때도 있었지만 〈개그콘서트〉는 13년의 시간 중 대부분을 월요일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과 일요일 밤을 함께했다. 최근에는 600회나 700회보다 더 의미심장해 보이는 666회도 맞이했다. 이대로라면 〈개그콘서트〉가 1,000회를 맞이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개그콘서트〉가 없다면 일요일 밤을 어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를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하지만 요즘 〈개그콘서트〉는 보이지 않는 위기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개그콘서트〉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익숙한 구성의 코미디를 바탕으로 한다. ‘정 여사’가 시작되면 누구나 매장 점원에게 화



를 내는 정 여사의 캐릭터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정말 너~무 비싸!” 같은 특유의 유행어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연인들의 이별을 다룬 ‘생활의 발견’은 이제 두 남녀 출연자만 앉아 있어도 그들이 헤어지자는 말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정해진 형식은 시작 당시부터 ‘정통코미디쇼’를 표방한 <개그콘서트>의 정체성이다. <개그콘서트> 자체가 KBS <유머 일번지> 같은 1980년대의 코미디 쇼들처럼 매주 같은 구성을 반복하는 공트 코미디를 부활시키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반복적이고 예상 가능한 구성이야말로 <개그콘서트>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유머 일번지> 같은 예전 코미디 프로그램이 모두 없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 반복되는 구성의 코너는 익숙하되 질리기 십상이고, 유행어는 어느 순간 재미있기보다는 유치하게 느껴진다. 안정된 구성 속에서 매년 다른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개그콘서트>의 숙제다.

물론 <개그콘서트>는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다. 그 옛날 박준형이 ‘생활사투리’로 영호남 사람들의 전혀 다른 정서를 비교하는 ‘공감개그’를 보여주기도 했고, 유세윤이 ‘착한 녀석들’의 캐릭터로 다른 코너에 끼어들면서 마치 실제 상황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달인’ 김병만이 몸을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붙이며 한 주 한 주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시청자는 김병만이 어떤 과제에 도전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그들은 매 회 외발 자전거 타기, 물구나무 서기 등등 갈수록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김병만의 모습에 집중했다. 매 회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최소한 1분 이상 그 도전을 성공해야 코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달인’의 특징 때문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반복적인 구성 안에서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황현희가 출연하는 ‘불편한 진실’이나 ‘막말자’는 그래도 매주 새로운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 엄마는 왜 아빠에게는 톡톡대고 아들에게는 오냐오냐하는지 같은 사소한 생활의 의문을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이나 남자가 바람 필 때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폭로하는 ‘막말자’는 같은 형식 안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어르신’이나 ‘친한 친구’는 매주 똑같은 설정에 똑같은 캐릭터가 출연해 내용만 조금씩 바꾼 에피소드가 이어진다. ‘어르신’에서는 매주 문제아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친한 친구’에서는 업종만 바뀔 뿐 매주 사업이 망한 친구에게 눈치 없는 친구 두 명이 찾아와 비슷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다. 비슷한 구성이 반복되더라도 봐야 할 만한 이유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은 셈이다.

프로그램이 매년 새로울 수는 없는 일이다. <개그콘서트>가 언제나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재밌지는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과거와도 상황이 다르다. 최근 방송가에는 ‘상황극’이 <개그콘서트>를 위협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장르로 떠오르고 있다. 상황극은 대본은 있지만 그 안에서 돌발상황을 만들거나, 출연자의 극중 캐릭터가 아닌 실제 상황을 연상시키는 일들을 제시해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공트로 MBC <무한도전>이 비정기적으로 하는 상황극 ‘무한상사’에서 생겨났다고 해도 좋을 장르다. 이 상황극에는 <개그콘서트>처럼 처음과 끝이 분명한 구성이 있고, <개그콘서트>처럼 출연자들이 순간순간 보여주는 공트가 있다. 하지만 <개그콘서트>와 달리 돌발적이거나 이전의 방영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제시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재미가 있다. ‘무한상사’는 처음에는 직장 야유회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신입사원의 등장을 소재로 하기도 했다. 매주 인기 스타가 게스트로 출연하는 tvN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는 엄밀히 말해 상황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극과 비슷한 장점이 있다. 방송의 내용물은 <개그콘서트> 같은 공트고, 당연히 대본도 있다. 하지만 방영되는 내용은 매주 출연하는 게스트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화 <친구>로 유명한 유오성이 출연할 때는 <친구>의 장면들을 패러디할 수 있고, SBS <신사의 품격>으로 화제가 된 연기자 김정난이 출연할 때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쇼를 구성할 수 있다. 지난 추석 잠시 방영된 MBC <시간을 달리는 TV>에서는 박신양이 배우가 아니라 가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박신양에게 가수 사이의 노래 ‘새’를 부르게 하기도 했다. <개그콘서트>처럼 익숙한 안정감은 주되 매주 새로운 재미가 있다. 거기다 개그맨들에 더해 유명 스타들도 볼 수 있다. 과거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의 공개 코미디쇼와 경쟁할 때는 같은 형식 안에서 더 나은 재미만 찾으면 됐다. 하지만 이 상황극, 또는 상황극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프로그램들은 <개그콘서트>와 비슷한 재미를 보장하면서도 <개그콘서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13년을 헤쳐오면서 맞이한 또 한 번의 위기. <개그콘서트>는 이번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일요일 밤을 지킬 수 있을까. **AF**

지친 삶을 위로받고 싶은 당신을 위한 힐링 연극 〈거기〉

철 지난 동해 해수욕장의 해질녘 작은 카페, 늘상 만나는 네 명의 사내와 모든 것이 새로운 한 명의 젊은 여자가 앉아있다. 낯선 여자의 등장으로 긴장감이 도는 '거기'에서 그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동네 노총각들의 귀신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사내들의 귀신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들려주는 여자의 귀신 이야기는 슬프면서도 마음 한 구석을 훈훈하게 한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 자신을 위안받는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만 같은 혹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점에서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낸다. 공연 내내 들을 수 있는 강원도 사투리도 눈길을 끈다. 급조된 것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강원도 사투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등 뒤가 서늘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강원도 특유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등장인물 '정'이란 이름에서처럼 그 독특한 정을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미 10년 전 배우 문소리 등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고, 이번 공연에도 연기에 대한 신뢰 하나로 대학로와 스크린에서 뒤흔친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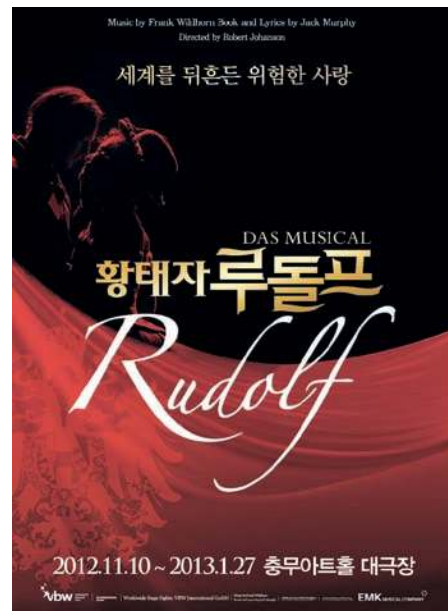
- 기간 : 11월 25일까지
- 장소 : 서울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
- 가격 : 전석 3만원
- 홈페이지 : club.cyworld.com/ClubV1/Home.cy/51505495



전 세계를 뒤흔든 위험한 사랑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는 뮤지컬 '엘리자벳'의 후속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유럽 역사를 놀라게 한 실존 사건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는 황태자와 그의 연인 마리 베체라의 비운의 관계를 드라마틱한 음악으로 풀어냈다.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벳과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아들이었던 루돌프는 유럽의 정치적 혼란기에 태어나 왕실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했지만 신 절대주의를 고수하는 아버지에 부딪혀 좌절하게 된다. 황태자 루돌프는 안재욱과 임태경이, 루돌프의 연인인 마리 베체라는 최근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뮤지컬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옥주현이 맡았다. 특히 '몬테크리스토', '지킬 앤 하이드', '천국의 눈물'로 음악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프랭크 와일드혼이 작곡을 맡아 무대의 감동을 더한다. 원작의 연출을 맡은 로버트 요한슨은 "'황태자 루돌프'는 역사적, 정치적 사실을 담고 있지만 우리와 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가을,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비엔나풍의 섬세한 감성으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

- 기간 : 11월 10일~2013년 1월 27일까지
- 장소 :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
- 가격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홈페이지 : www.musicalrudolf.co.kr



오빠, 착한 음주 스타일
* 공군지 캠페인

독감백신 예방접종
* Health Diary

젊은 날, 거침없이 날아간 비행
* 독자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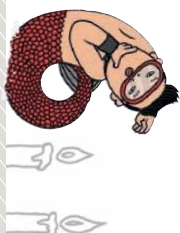
상처 없는 성공은 없다
* 책마을

Opinion



오빠,

착한 음주 스타일



한국 남성들이라면 여자 친구나 가족에게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술 좀 적게 마시라’는 것이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몸에 좋다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일명 독한 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마시게 되면 건강에 큰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적당히 마시면,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전신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배설물과 함께 몸 밖으로 씻어내 몸속을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술. 어떻게 술을 마셔야 효과적으로 마셨다고 소문이 날까?

A alcohol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도 술이다

흔히 약한 술을 마셔야 몸에 조금이나마 해를 덜 주지 않을까란 생각에 약한 술을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약한 술이건 독한 술이건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을 적게 마셔주는 것이 좋다. 일명 말하는 센 술은 도수가 높기 때문에 작은 잔에 적게 마시지만, 약한 술은 큰 잔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털어 마시면서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술은 적게(30g/day, 포도주 1잔 정도) 마실수록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온몸의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뱉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의 독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보통의 맥주 속에는 에탄올이 4.5%(4.5도) 들어 있는데 맥주 1캔(355ml)을 마시면 이 에탄올을 제거하는데 약 2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소주를 1병 마실 경우 12시간이 지나야만 신체에서 술의 영향이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F flush

절대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에게겐 술을 권하지 마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신체에서 분해되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하고 다시 산으로 변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효소인 알코올-디하드로게나제(alcohol dehydrogenase)가 부족할 경우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여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게 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숙취를 일으키고 신체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로 인해 건강이 쉽게 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마시면 몸에는 당연히 치명적인 수밖에 없다.



A collection of glass bottles and a bottle cap, some containing colored liquids, arranged on a white background. The bottles are of various shapes and sizes, some containing red, yellow, and green liquids. One bottle is empty and clear. A small green bottle cap is also visible.



독감백신 예방접종

잠시 단풍에 취하고 보니 어느새 쌀쌀한 11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쁘게 지낸 임진년도 인제는 두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맘때쯤 감기 등의 호흡기질환이 기승을 부리는데 주변에서는 예방하고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감기와 독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어 발생하는 병이며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며 감기보다 증상이 더욱 심해 사망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국 병에 걸리는 원인 바이러스군부터 다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및 추운 날씨에 호발하는 독감은 치명적이기에 국가에서도 매년 예방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은 '독감예방접종'을 주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은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코, 목, 폐를 침범하며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감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독감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같이 계절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매년 겨울에 유행합니다. 심한 증상 및 강한 전염성을 보이는 독감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의 종류는 A, B, C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입니다. B형은 증상이 약하고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하지만, A형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당단백질 성분의 H항원과 N항원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항원의 종류는 H1, H2, H3와 N1, N2이며, 조류에서 나타나는 H항원과 N항원은 보통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바이러스 내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종류의 항원과 유전자를 교환하면 사람에게도 쉽게 병을 일으키는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간혹 발생하는 조류독감 또한 그 난리법석의 주인공이 변형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사람에게 면역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전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유행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백신의 종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은 항원성이 자주 바뀐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한정된 시기의 지역적인 유행을 불러오는 항원은 적은 수준에 그치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최근 몇 년간 유행한 A형과 B형의 항원성과 유사한 바이러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신 바이러스주의 선정은 백신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백신주와 유행주와의 일치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참고로 백신제조 바이러스주를 선정하는데 해당 연도에 시작되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주 선정은 대개 4~6월경의 인플루엔자 분리상황을 확인하고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지금 맞는 독감예방백신은 몇 개월 전의 분석자료를 통해 올 겨울 유행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 바이러스주인 것입니다.

예방접종의 필요성 및 효과

독감은 바이러스 특성 때문에 주기적으로 항원성의 변이가 일어나 유행을 일으키는데 일단 유행이 시작되면 전파가 빨라서 의료 및 사회적인 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인플루엔자를 없애는데 효과적인特效약이 없으므로 백신에 의한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집단성 유행을 막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며, 예방접종을 하면 60~90% 정도의 예방효과를 기대합니다. 접종의 효과는 백신주사 후 2주 내에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여 4주 뒤에는 최고에 도달하지만 지속기간은 약 5개월 정도이므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를 감안하여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항시 항원성이 조금씩 변화하므로 유행주와 백신주가 유사한 경우에는 효과적이며, 유사하지 않을 때는 백신의 효과는 적게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측 가능한 유행주에 맞추어 최적의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방 대상자 및 주의사항

예방접종 대상자로 건강이 취약한 예방백신 시 심장병,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만성 신장질환, 당뇨병, 천식, 면역기능저하 환자, 12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역시 접종이 권장되나 태아가 민감한 시기를 피하여 임신 12~14주 이후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유행시기 집단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및 학생, 군장병을 고위험군으로 포함하여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흔한 부작용으로는 12~24시간 내에 주사 부위에 발적, 동통, 소양증 등의 국소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38도 이상의 발열, 근육통, 관절통, 두통 같은 전신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급히 의무대 내지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사항으로 고열이 있는 사람은 접종하면 안 됩니다.

기타 독감예방접종 주의사항

- 독감백신은 달걀에 과민반응,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맞으면 안 됩니다.
- 예방접종 후 주사부위가 부어오르는 것은 정상반응입니다.
- 접종부위를 긁거나 만지지 말고, 접종당일 목욕이나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
- 고열, 경련, 심한 두통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급히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요즘 심한 감기증세로 의무대를 찾는 젊은 군장병을 보면 식구결을 잠시 떠나 홀로 맘고생에 몸고생이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추운 겨울에 주변이 더욱 조용하고 차갑게 느껴지겠지만 아무쪼록 동기 및 선후배 사이 따뜻한 전우애로 올 겨울을 건강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신은 인간에게 치료약이 없이도 독감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심과 동시에 과학적 사고능력의 지혜까지 주셨으니 아무쪼록 '예방백신접종'을 적극 시행하여 건강관리를 챙겼으면 합니다. **AF**

獻詩

점은 날 거침없이 날아간 비행



점은 날
거침없이 날아간 비행
성난 독수리 되어 조국하늘 지키던 나날들

그 낮과 밤, 하늘에 묻었다
하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지금, 가슴 뛰는 비행이 가장 그립다

어둑새벽
지축을 흔드는 엔진 굉음은 불의를 잡아 삼키려는 포효
차라리 대자연에 향한 맹수의 울부짖음
선홍빛 불기둥 터지며 비상하는 자태는 공포 넘어 전율이었다

그 시절
비행편대는 순식간에 올라가 한 점으로 사라져 간 고도에서
날새게 달려드는 상대를 꺾고 꺾어 물고 늘어지던
전투기동은 사활이 걸린 마지막 몸부림

어느 해 뜰 무렵
저공으로 숨어 날아가 갑자기 솟구쳐 폭탄을 퍼붓고
뒤돌아 아래를 본다
치솟는 검은 화염에 천둥번개가 친다

작전은 끝났다
밀집대형으로 접근해 오는 2-3-4번기 날개 끝에 안고
거친 승결 몰아 쉬고 활주로에 내리면
격납고 저쪽 관제탑 너머 붉은 노을이 진다

비로소

땀에 젖은 헬멧 벗어 들고 활짝 웃는 모습, 아름다웠다
시퍼런 산소 마스크 주름살은 자랑스런 훈장
거기에는 투혼이 고동치고
생존의 애착과 고단한 여정이 흘러 내린 게곡이었다

비행을 사랑했다. 열정도 바쳤다

소낙비 속 가까스로 비상착륙, 처절과 기적이 뒤섞인 긴 이야기
야간비행은 어두운 침묵과 고독, 등불 들고 집으로 가는 외로운 별들
어저더다 두리에서 작별한 깃털 하나, 피에 물든 붉더 붉은 죽음도 보았다

그렇다

소용돌이 쳤던 히로에락 한 평생, 그 업(業)은 세월간 마후라였노라
우리는 20세기 후반 격동의 계절 그 약속, 영광을 지켰노라

공군이며!

순간을 영원으로, 하늘에서 우주로 가는 길목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열망은 우리의 꿈이자 이상이거늘
역사와 전통은 끝 없는 도전으로 살아 인계 인수될 뿐이다

조종사여!

출격명령은 단 한줄, 강력하고 언제나 냉정하다
제공권을 장악하라
적 심장부를 파괴하라
지 해상 근접지원하라
단독 정찰비행하라
상륙 교두보를 확보하라

공수악하 침투하라

즉각 헬기 인명구조 들어가라

이것은 실로 육지에서 바다에서는 속수무책

공군, 오직 조종사 너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 무거운 전투 임무다

보라, 날아 가는 새

국경은 이름뿐 실상은 없고

산맥이나 파도가 장어물은 아닐지라도

목표는 중심 깊숙이 좀처럼 난공불락

허허로운 공중에 눈부신 태양만 잠시 등질 뿐 막아 주는 방패는 없다

전장은 적지, 난처한 적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최일선 현장 당사자이자 지휘관

최후의 의무 수행자이자 전쟁 종결자

이렇듯 알찌니

아침 이슬에 복서지는 어리석은 꽃잎이 되지 말고

천리안으로 쏘아 보는 매서운 눈

물어 뜯는 복리

웁겨잡는 발톱

먹센 날개로

야생의 들판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독수리, 지혜로운 독수리가 되라

젊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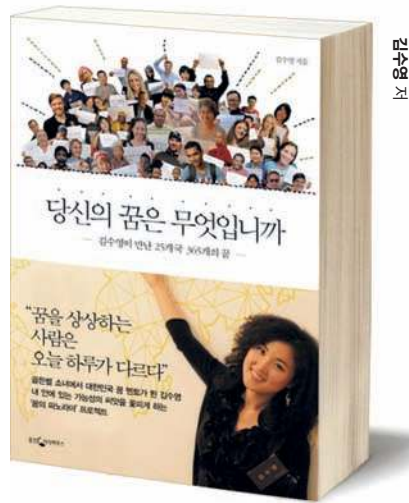
거침없이 날아간 비행.....

성난 독수리 되어 조국하늘 지키던 나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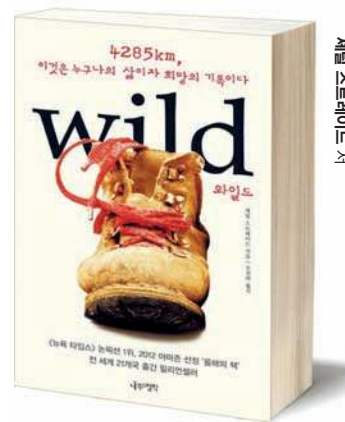
그 낮과 밤, 이제는 하늘에 묻었다

하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지금, 가슴 뛰는 그 비행이 가장 그립다



김수영 지



세릴 스트레이드 지

상처 없는 성공은 없다

언제부터인가 성공학, 처세술, 리더십 등 자기계발 관련 서적들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출판업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황소처럼 우직하게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조직이든 개인이든 한두 번씩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공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종류의 자기계발 서적들이 출판되어 나왔지만 정작 그 내용들은 대부분 비슷하고, 역사 속의 위인에 대한 이야기 또는 외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거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자기계발 서적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긍정’의 키워드는 누구든지 긍정적인 마음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도 성공이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부딪치고 깨지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최근에는 ‘힐링(healing)’이 사회 전반에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 제목으로 크게 주목받기도 한 힐링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치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공으

로 향하는 기나긴 여정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누구든지 쓰러지고 낙담하며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것을 치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이들이 오직 긍정의 힘만으로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없이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수없이 많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면서 극복해왔는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그 내면의 노력에 더욱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두 권의 책도 바로 이와 같은 힐링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김수영 지, 웅진 지식하우스, 2012)와 『와일드』(세릴 스트레이드 지, 우진하 역, 나무의 철학, 2012)의 두 저자는 어렵고 힘들었던 삶의 여정에서 그 난관을 스스로 극복하고 치유하면서 각자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책마을〉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을 흔히 신데렐라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데렐라도 계모와 의붓언니의 구박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성공했다며 농담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들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면 스스로 치유하십시오. 어느 순간 다른 이들에게 성공이라는 꿈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AF**

2012 November

Vol.413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5.1~2013.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2 November

Vol.413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11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11월호
퀴즈 정답

1.

2.

3.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11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1월 30일까지

1. 황태자와 그의 연인 마리 베체라의 비운의 관계를 드라마틱한 음악으로 풀어낸 뮤지컬은?
2. 2004년 4월 탄생한 순수 봉사 모임으로, 환경이 어려운 공군 현역과 예비역을 지원하는 단체는?
3. 1965년 북베트남과 베트남 게릴라들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시작된 작전으로 8주로 예정되었지만 북베트남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3년 가까이 지속된 이 작전의 이름은?

9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프로데터 2. 스트레이트 스토리 3. 김정렬 장군

퀴즈 당첨자 전남 여수시 정아현 ● 전북 익산시 박진이 ● 서울 구로구 김석환
대전 대덕구 김 원 ● 부산 연제구 강주찬 ● 경남 창원시 우도형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미디어영상팀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najung21@hanmail.net(인터넷)
najung21@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43 / 042-552-6943



입문과정



3개월

기본과정



6개월

고등과정



8개월

